

“고분자과학과 기술”의 창간을 축하하며

대한화학회 회장 윤 능 민



먼저 1990년 새해를 맞이해서 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. 고분자학회에서 이번 새해부터 “폴리머”를 학술 잡지로 독립시키고 “고분자과학과 기술”지를 창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 돌이켜 보면 고분자학회가 지난 1976년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성좌경 선생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발족한 이래 회원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으로 3000명의 회원을 가지는 큰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. 지난해에는 기능성 고분자의 분자 설계에 관한 IUPAC 국제 심포지움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, 또 오는 1996년에는 거대분자에 관한 IUPAC의 더 큰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번의 “고분자과학과 기술”의 발간은 오히려 좀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

고분자 학계에서는 산학연 관계가 아주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. 즉 연구소와 산업계가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재를 잘 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연구소와 대학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, 산업계에서는 이들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야말로 고분자학회가 오늘날과 같이 발달하게 된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

화학회도 그동안 많이 발전하였습니다. 연구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나 분과회가 여덟개나 생기고 각 분과가 모두들 활발하게 심포지움,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눈을 돌려 미국, 일본, 그리고 구라파의 몇몇 나라들을 살펴보면 우리들의 갈 길이 아주 멀어서 이제까지 우리들이 성취한 발전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. 우리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는데는 여러가지로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만은 그중 한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들 상호간의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고분자 학계에서 산학연 삼자가 잘 협력하고 있듯이 고분자 물리를 연구하는 분들이 물리나 물리화학하는 분들과 협력하고 고분자화학자들이 유기화학자들과 서로 도와서 연구할 수 있으면 우리들은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선진국을 쫓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.

물질의 과학이 화학이니까 고분자는 물론이고 반도체나 초전도체 등 신소재를 다루는 모든 분야가 광범위하게는 모두 화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우리는 모두 같은 화학자입니다. 현재 화학의 발전 속도로 미루어보아 지난 50년 동안 고분자화학이 눈부시게 발달해 왔듯이 앞으로 고분자화학을 포함해서 모든 화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. 90년대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우리나라 화학계가 2000년대에는 선진국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